

남은 자가 말하는 죽은 자에 대한 기록

—『1974년 4월-실록 민청학련 1, 2, 3』

전현수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사회주의는 현재의 운동에서 과거의 역사로 이동했다. 이러한 이동은 1960년 4월 이후 전개된 한국 민주화운동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세력은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승기를 잡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잇따라 수립했고, 2004년 4·15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도 장악했다. 이제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본류로 위치 이동하여 이에 대한 기억을 국민 전체의 공동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과거청산작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바야흐로 민주화운동이 현재의 운동에서 역사로 자리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수구세력의 저항으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을 현재의 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청학련 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가 엮어 낸 『1974년 4월-실록 민청학련 1, 2, 3』(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엮음, 2004, 학민사, 이하 『1974년 4월』로 약칭)은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1,024명에 달했다. 이

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사형 등 중형이 언도되었지만 열 달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의 환호 뒤에 숨죽여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즉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으로 구속된 2차 인혁당 23명의 가족들이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민청학련 사건에선 소외된 인물들이었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인혁당 사건 심리는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이들 중 8명은 197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은 아직도 역사 속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남은 자와 산 자가 죽은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1974년 4월』은 현재 3권까지 출간되었다. 2003년 11월 3일 제1권이 발행될 시점에는 3권 정도로 엮어 낼 예정이었지만, 2004년 10월 15일 제3권이 나온 시점에서는 5권 정도로 발간 계획이 확대되었다. 이 기록은 ‘민청학련 정신’의 대의가 계승되어 한국 민주화운동도 다시 한 번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되기를 희망하며 과거에 대한 기억을 역사로 정착시키려 한 것이다. 이 책에는 민청학련 사건 및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의 기록이 실려 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당시의 시대적 아픔과 고민을 보여 주는 거대담론에서부터 감옥에서 겪은 개인의 고통과 사형수 가족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군사독재정권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갖가지 상흔이 녹아 있다. 이하에서 『1974년 4월』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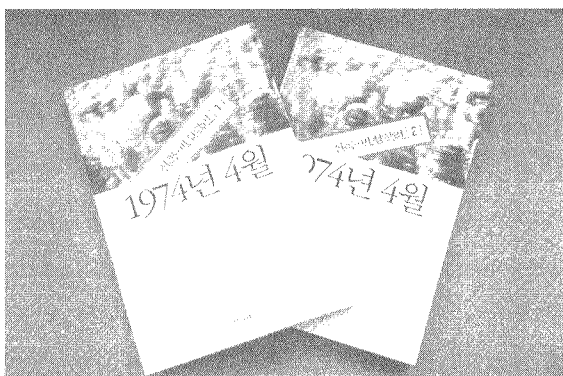
민청학련의 ‘수괴’ 유인태와 ‘행동총책’ 이철은 민청학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둘의 기록에 의하면 1973년 10월 2일 반유신의 첫 봉화를 올린 이후 그해 12월 초순까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과 지방의 주요 대학에서 유신반대 동맹휴학, 수업거부, 시험거부운동이 전개되고, 1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차원의 학생운동 조직화가 모색되었다고 한다. 1974년 1월 10일에는 조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소집되어 우선 출발은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 등 3개 단과대학을 축으로 하고, 서울

은 서울대, 고대, 연대를 축으로 구성하고, 전국 단위는 서울, 대구, 광주를 축으로 하여 전국적인 투쟁조직을 완결하는 3·3·3 원칙이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월 7일에는 체계 준비를 위한 모임이 소집되어 투쟁의 기획, 연락은 서울이 맡고,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유인물은 서울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급하고, 각 대학별 예비시위를 조직하고 4월 초에 일제히 거사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철과 유인태의 글에는 정보부가 민청학련과 억지로 연루시켜 조작한 인혁당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안타까움과 살아 나온 자에게 남아 있는 부채의식도 드러나 있다.

정윤관은 서울대 문리대 학생운동권의 입장에서 당시의 정세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유신헌법 철폐라는 좁은 의미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생존권 쟁취가 운동의 목표로 제기됨으로써 이후 민주화운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되어 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속학생 중에서 가장 후배였던 박용훈은 4월 3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 이종구는 유신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운동을 펼친 1973년 10월 2일 시위에서부터 긴급조치 4호가 내려질 때까지 서울대 학생운동권에서 있었던 일을 개인의 체험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긴급조치 4호 관련 구속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올 2월에 운명한 서강대 김윤은 사전준비에서 행동, 투옥, 석방에 이르는 서강대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서강대 구속학생 가운데 가장 높은 선배격인 박석률은 민청학련 사건 당시의 정세와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타도운동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1심에서 부처님의 눈에는 검사가 죄인으로 보일 것이라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해 주목을 끌었던 동국대 여익구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가족 내부의 갈등을 진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민청학련 동지들의 연대를 꾸준히 모색해 온 김학민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의 폭거로부터 1974년 긴급조치의 발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대의 아픔에 적극 뛰어든 '의식 있는' 젊은이의 생각과 실천의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상익은 비둘기와 쥐를 벗 삼는 독방 죄수의 정신세계를 그리고 있다. 한계상황에서 벌인 단식투쟁 이야기도 있다. 바깥구경이 하고 싶어 시력을 조작해 억지로 간 고향의 안경점에서 받은 환대는 당시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최민화는 기독교학생운동 진영이 겪은 민청학련 사건의 경과를 전하고 있다. 삼선개헌 반대투쟁부터 시작해 민청학련 사건에 이르는 학생운동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의 글은 기독교학생운동의 노력으로 세칭 명문대가 아닌 곳으로 이념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강제입영된 학생이 겪은 악질 고참병의 횡포와 군 내부의 비인간적인 실태는 군사독재 시대의 사회적 병리를 축약해 놓은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함석헌 선생을 모시고 간디 사상을 공부하던 모습은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생운동의 한 측면을 보여 준다. 이 글의 압권은 경찰의 미인계 유혹을 고발하였다고 오히려 운동권 여학생들에게 성 불구자로 의심받았다는 대목일 것이다.

당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간사로 기독교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정상복은 악랄한 고문의 실태를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다. KSCF 관계로 구속되었던 나상기도 각본에 맞추는 수사의 실태와 서울 구치소에서 겪은

배고픔의 기억을 말하고 있다. KSCF 관계로 구속된 김형기는 고시 준비생이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동기, 보안사 수사, 구속, 재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 사회에서 생활인으로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경북대 학생들이 인혁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임규영은 경북대 학생운동의 흐름, 민청학련 운동의 준비과정과 현장 상황, 수사와 공판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전해 주고 있다. 그는 특히 해방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의 흐름에서 경북대 학생운동의 위상을 조명하고 있다. 임규영은 사형이 집행된 여정남, 인혁당으로 분류되어 1975년 2월 15일 일제 석방에서 제외되고 장기형을 살아야 했던 임구호, 이강철과 경북대 학생운동권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였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작인가를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극렬한 탄압의 대상이 된 이유를 그곳이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악연에서 찾고 있다. 강기룡과 이광하도 경북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소상하게 전해 주고 있다. 이광하는 1974년 경북대 투쟁의 주도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글은 민청학련 사건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보여 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윤한봉은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 다음에도 행동에 나섰던 전남대 학생운동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본래 1980년의 광주항쟁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화물선에 숨어 미국으로 망명하여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의 거점을 구축하느라 동분서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유신 선포 전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작된 젊은 지사들의 민주화운동이 발전하면서 학생회 정화, 커닝 추방과 같은 학내 질서의 건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투까지 동원했다거나, 서울까지 가서 구해온 등사판의 사용방법을 몰라 애대웠다는 일화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다. 구치소에서조차 전남대 학생들만 관복을 입고 있어 변호사들이 까마귀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오성숙은 이화여대에서 겪었던 민청학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참한 사회적 현실과 화려한 대학생활 사이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고민, 학생운동 조직 가입과 학내 의식화 활동, 공장 활동, 시위 참가에 대한 기록에서는 당시의 학생운동권 누구나 겪었던 과정이 담담하게 재현되어 있다. 오성숙은 검거되지 않고 남은 '도망자'가 겪는 미안함, 막막함과 공포를 솔직하게 글로 남기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초기 여성 노동운동에 헌신한 김은혜, 최영희, 이미경, 장하진, 박혜숙 등 '새얼' 회원들의 이야기도 한국 사회운동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박상희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박상희는 긴급조치 1호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젊은 기독교 목회자들의 시국선언 전야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한신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공장에서 노동하며 산업선교를 훈련받던 체험에 대한 기록은 한국 노동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선언문을 넣은 편지가 검열에 적발되어 수취인들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발송자들이 체포된 사실은 유신독재 시대에는 통신의 자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박상희도 고향집에 건 전화가 추적되어 검거된 적이 있다.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들이 박정권의 의도대로 구치소의 벽돌 담장 안으로 매몰되지 않고,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어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이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하였기 때문에 용공조작 음모가 폭로되고 다수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재야 민주인사들의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제2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해위 윤보선은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 해위 선생의 회고록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는 학생운동을 박정권이 무력으로 탄압하고 고문수사를 통해

용공분자로 조작한 민청학련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고 있다. 이 기록에는 긴급조치 1호에서부터 시작해 9호가 발동될 때까지의 시기가 다루어져 있으며, 재야 민주세력 지도부의 정세 판단과 동정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금 제공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정보부의 용공조작 시도는 원천적으로 뒤집히게 되었다.

김지하 시인은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청년학생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71년 '오직' 필화사건으로 구속자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명사였다. 김 시인의 글은 4·19 이후의 학생운동과 민청학련 운동이 연결되는 이념적, 인적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이 꿈쩍없이 빨갱이로 몰리고 있는 사건을 지학순 주교와 연결시켜 가톨릭 세력이 석방운동에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기지를 발휘하고, 인혁당을 조작한 박 정권의 음모를 대담하게 폭로하는 김지하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다. 양심에 따라 감옥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박 정권의 종말도 앞당겨진다는 김 시인의 예언은 1979년에 그대로 실현되었다.

공덕귀 여사는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자라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이미 고인이 되었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교회여성운동과 구속자가죽협의회 활동에 대한 그녀의 기록은 한국의 초기 인권운동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공덕귀 여사는 응암동 성당에서 인혁당 사형수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해 가며 버스로 문정현 신부를 치고 넘어가던 기가 막힌 사연도 전하고 있다.

변호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강신옥 변호사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긴급조치와 비상군법회의 재판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균형감각의 귀감이라 할 것이다. 강신옥 변호사가 몸으로 때우는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긴급조치뿐만이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거친 유신의 불법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던 것이다.

고故 황인철 변호사는 사법살인 음모를 규탄하다가 법정에서 잡혀 간 강신옥 변호사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황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비상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진 엉터리 재판을 고발하고 있다.

1974년 9월 18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의 항소심 재판에서의 '애국가 봉창' 사건을 기술한 홍성우 변호사의 옛글은 30년 전의 일그러진 풍경을 보여 준다. 어찌어찌하다가 인권변호사가 되었다는 홍 변호사의 겸양 앞에 70~80년대에 홍 변호사에게 빛을 진 술한 '빵잼이' 들은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긴급조치 1호의 선포부터 1975년 2월 15일 석방 때까지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했다.

현직 교수로서 학생들과 옥고를 함께 치른 김동길과 김찬국은 교도소에서 기숙사형 국립대학을 운영한 에피소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김동길의 글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일상 대화가 조작된 범죄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김찬국도 세배 온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긴급조치 위반이 되어 버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민청학련 구속자 석방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한 세력이다. 차라리 중형을 내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국가, 종교, 사회윤리의 관계를 밝히는 귀중한 글을 남겼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지금도 옷깃을 여미고 경청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넘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실무를 맡아 온갖 험한 일을 치른 함세웅 신부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상흔은 인혁당 문제이다. 『1974년 4월』 제3권은 인혁당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사형이 집행된 여덟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가 수록되었다. 사형수의 신분에서 집필한 이들 문건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재판을 강요했던 중앙정보부의 만행에 대한 준엄한 고발장이기도 하다. 백보를 양보해서 복한 방송 녹취기록을 증거물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이 정도

의 사안이 과연 여덟 분의 생명을 앗을 만한 중대 범죄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의 변호인들이 작성한 항소·상고이유서를 보면 공판 진행과정 자체가 탈법적이었고, 군법회의법까지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한승헌 변호사는 개별적인 기소 사실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고 긴급조치와 군사재판의 위헌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구속 학생들이 석방된 다음에 한승헌 변호사도 변호를 담당한 간첩 사형수를 추모하는 글을 썼다는 죄목으로 잡혀가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임구호, 김종대, 강순희의 증언이 실렸다. 임구호가 재학 중 참여했던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대한 서술은 향후 한국 학생운동을 정리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생존해서 석방된 김종대의 글은 그가 직접 겪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고문 가담자와 정보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사의 실명이 밝혀져 있다. 추방된 시노트 신부가 미 정보기관 관계자를 통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확신하고 석방운동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져 있다.

강순희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우홍선의 부인으로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1975년 2월 15일 석방 조치 이후 감옥에 남은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해 정부에서 언론을 동원하여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니 공산당이 틀림없다고 선전할 때 등장한 김상한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미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복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다른 월북자인 김배영이 북한에서 처형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분단의 비극을 되새기게 한다.

인혁당 사형수 고故 하재원의 부인인 이영교는 사법살인이 벌어지던 당시의 참담한 상황만이 아니라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의 해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

는, 아이들까지 유가족에게 올라가미를 씌우고 돌을 던졌던 당시의 집단적 정신이상 상태에서부터 벗어났는가를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74년 4월』은 청년학생과 진보적인 지식인 및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청학련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 운동을 포함한 1970년대의 사회운동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은 60~70년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사적 실체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적 국가 폭압을 고발하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추진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과 거짓의 싸움에 대한 기록인 『1974년 4월』은 진리 편에서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인 장석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장석구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심의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명백히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II 권』, 2003, 86~137쪽) 하루 속히 재조사가 이루어져 희생자들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사적 실체와 숭고한 이상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현수 jeonhs@bh.knu.ac.kr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역사학박사. 한국현대사/북한현대사 전공.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서로는 『소련군정 시기 북한의 사회경제개혁』, 『한국근현대 민족문제의 신국가건설』, 『북한현대사』(공저) 외 다수가 있다.